

김천홍의 예술세계

가. 김명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 |
|-----------------|----------|
| I. 머리말 | V. 맺음말 |
| II. 시대별 활동 및 업적 | 참고문헌 |
| III. 주요작품 | Abstract |
| IV. 김천홍의 예술세계 | |

I. 머리말

“살아있는 춤의 역사”, “한국궁중무용의 정통 계승자”로 불리고 있는 심소(心韶) 김천홍(1909-)은 마지막 남은 가무악(歌舞樂)의 명인이자 예인이다. 이세기는 그의 저서에서 ‘그의 춤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사람의 심금을 움직인다’라고 그의 춤의 깊이를 평하고 있다.

김천홍은 1909년 서울에서 가난한 목수의 다섯 아들 중 셋째로 태어나 14세 되던 1922년 가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왕직악부 2기생으로 입소하여 당대 명인 하규일(河圭一), 함화진(咸和鎭), 이수경(李壽卿), 김영제(金寧濟) 등으로부터 악가무 일체를 이어받아 예인의 길에 들어섰다. 그 후, 국립국악원 예술사, 연구원, 자문위원을 거쳐 현재 원로사범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후진을 양성하였고, 구십 평생을 오로지 궁중무용과 국악에만 전념해온 산증인이자 이 시대의 예인이다.

이렇듯 14세에 시작된 그의 춤 인생은 조선왕조의 마지막 무동, 정재 재현, 창작춤 공연, 학문연구와 후진 양성 등에 매진하여 가무악의 외길만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문화상(1960), 문화재보존공로상(1968), 대한민국 예술원상(1970), 국민훈장 모란장(1973), 한국국악대상(1983), KBS국악대상(1992), 방일영 국악상(1997), 국민훈장 금관문화훈장(2001) 등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그의 주요 업적으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1호 종묘제례악과, 제 39호 처용무의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았으며 궁중무용의 전승과 재현에 평생을 받쳐 그가 보고 배운 춤을 고문헌을 바탕으로 재현하는데 큰 공헌을 새웠다. 또한 무용극 「처용랑」, 「만파식적」 등 여러 편의 창작 작품을 순수 국악 창작곡으로 실황 연주하여 무대에 선보임으로써 무용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차범석은 김천홍을 ‘국악계의 웅달샘이요, 높은 산봉우리이며, 천풍에 실려 오는 대바람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소담하고 울곧고, 그러면서도 굽을지언정 꺾일 줄 모르는 청죽(靑竹)의 기상은 바로 그 어른의 모든 것이며, 인생철학의 바탕이시다.’¹⁾ 라고 평하고 있다. 또한 백년지기인 성경린은 ‘국악계를 통틀어 높은 스승일 뿐만 아니라 인품이요, 덕망, 학식이나 예

술에서 앞으로 누가 있어 선생을 따를 이가 과연 있을 것 같지 않다'²⁾라며 김천홍의 역사적, 인간적인 면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궁중무용은 한국의 전통춤 중에서 가장 전승계보가 확실하며 문헌적 자료가 풍부한 분야인 반면 일제치하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인해 소멸할 위기를 거친 귀한 분야이다. 이 시기 김천홍이 조선왕조의 마지막 무동으로 정재를 전수받지 못하였거나, 아악부 시절을 사직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춤을 포기하였다면 조선궁중무악의 모든 형상과 연희 과정 등은 문헌으로 남겨 있을 뿐 그 실체가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김천홍에 관한 저서, 논문, 대담자료, 신문기사, 각종 공연 팸플릿 등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와의 인터뷰 대담자료를 심화, 보충하여 서술하였다. 그러나 현존하는 인물을 연구한다는 것과, 구십이 넘는 고령으로 인해 심도 깊은 인터뷰를 통한 인물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힌다. 또한 김천홍의 일생에서 나타나는 무용 이외에 국악과 관련된 방대한 역사적 사건을 모두 다루지 못하고, 본 연구의 주제인 김천홍의 예술세계를 재조명하는데 중요한 사실들만을 부각하여 연구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김천홍과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박준규(1993)의 '심소 김천홍의 춤 연구'와 유준(2003)의 '근현대 한국무용발전에 영향을 끼친 남성무용가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나, 대부분 그의 생애와 업적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방대한 업적을 쌓은 김천홍의 연구로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김천홍의 생애 및 시대별 활동과 업적, 그의 주요 작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예술세계를 고찰하는데 있다. 이에 김천홍의 생애에서 그의 춤을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여 인물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삶에서 나타나는 예술세계를 정리하였다. 이 시대 살아 있는 춤의 역사로 평가되는 김천홍의 삶을 살펴보고 그의 업적과 예술세계를 재조명하는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II. 시대별 활동 및 업적

김천홍은 한 세기를 전통무용에 몸담고 살아온 한국무용계의 살아있는 역사라 일컬어진다. 이러한 김천홍의 일생을 시대별로 다섯 기로 나누어 각 시대별로 나타나는 무용사적 업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김천홍은 1909년 서울에서 김재희와 정성녀 사이의 5형제 중 3남으로 태어났다. 1920년 서울정동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균명학당에 입학하여 평범한 소년기 시절을 보냈다. 이 시기에 김천홍은 축구와 야구 등 여러 운동을 즐겨하며, 축구경기에 출전할 만큼 만능 스포츠맨이었다고 한다.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내던 중, 집안과 잘 알고 지내던 아악부수장 고익삼의 소개로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部) 2기생으로 입학한 것이 그가 국악과 전통무용의 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김천홍이 궁중정재의 길로 입문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지만, 현재 행해지고 있는 수십 편의 정재와 국악악보 등의 보존과 계승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되었고, 또 우리 국악계와 전통무용계의 산증인이자 대명사가 되었다고 감히 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한국궁중무용의 정통 계승자', '한국 무용사와 국악사의 산증인'이라 칭송되는

1) 심소 김천홍선생 무악인생 80주년 기념공연 팸플릿 자료

2) 이세기(2002).『빛을 가꾸는 에피큐리언』(푸른 사상), p. 119.

김천홍의 생애를 시대별로 다섯 기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기인, 초년기는 1909년 출생부터 이왕직아악부에 입소하여 1926년 아악생으로 졸업할 때까지 시기이다. 목수일을 하시던 아버지 밑에서 평범하게 초년기를 지낸 김천홍에게 인생의 변화는 1922년 한일합병으로 말미암아 궁중음악과 무용을 맡았던 장악원이 개칭된 이왕직아악부 2기생으로 입학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집안에서 친분이 있었던 아악부수장 고익삼의 소개로 둘째 형 천룡은 그해 봄에 미리 입소하고 김천홍은 가을에 2기 아악생으로 입학하게 된다.

1922년 그가 14살 되던 해 아악부 2기생으로 입소한 이후 1926년 졸업하기까지 해금과 양금, 아쟁을 전공, 부전공으로 다루었으며, 무동(舞童)에 선발되어 종묘 및 문묘 제례와 궁중정재 등을 두루 익혔다. 이 초년기 시절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23년 3월 순종황제 오순탄신경축 진연에 무동으로 뽑혀 정재를 추었다는 사실이다. 아악부에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아 11명의 무동 중 한명으로 뽑히게 된 김천홍은 약 다섯 달에 걸쳐 「가인전목단」, 「장생보연지무」, 「연백복지무」, 「무고」, 「포구락」, 「보상무」, 「수연장」 군무 7종과 「춘앵전」, 「처용무」 독무 2종, 모두 9종의 정재를 전수받게 된다. 최종민의 저서에서 김천홍은 당시 아악부 음악과 정재 전수를 담당하였던 스승은 함화진(咸和鎭), 이수경(李壽卿), 김영제(金寧濟) 선생이었는데 특히 정재는 이수경 선생에 의해³⁾ 대부분 전승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김천홍의 대담자료에 의하면 그는 “무용은 내가 1923년 순종 앞에서 춤을 춘 것에서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중무가 이어지게 된 연유는 3기생의 성경린, 김보남 선생, 4기생의 고 김성진 선생, 5기생의 고 김태섭 선생 등, 이런 식으로 해서 해방 전 6기생까지 그 춤이 이어졌습니다. 순종황제 오십 수 잔치를 비롯해서 1900년대 초까지 추고 끊겼다가 이어진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던지 모릅니다. 오늘의 궁중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⁴⁾ 라고 증언하였다. 이렇듯 우리 무용사에서 궁중정재라는 한 축이 역사속으로 소멸될 뻔할 위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극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고, 김천홍이 궁중정재를 전수받아 순종 앞에서 마지막 무동으로 추었다는 사실은 한국무용사상 뜻 깊은 사건이라 사료된다.

이렇듯 김천홍의 초년기는 우리 국악계와 무용계의 조선후기, 일제치하, 광복, 6.25동란 등의 한 세기를 온 몸으로 버텨낸 산증인이라는 칭호가 무색하지 않는 그야말로 국악과 춤의 입문기라고 할 수 있다.

김천홍의 생애에서 두 번째 시기는 1926년 아악부를 졸업하고 아악수보와 아악수장의 직위를 두루 지냈던 15년간의 아악부 재직시절인 청년기이다. 이 시기에 김천홍은 부인 고 박준주와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가곡, 영어, 중국어, 시가, 양악보해독법 등 다양한 방면으로 학문을 익혔다. 김천홍이 국악계와 무용계에서 최고 스승이자 가무악의 일체를 온 몸으로 살아온 역사적 인물이라고 평가되는 까닭은 이 청년기 시절 좋은 스승으로부터 열정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이 시기에 특이할 만한 사실은 아악부에서 정악만 전공하던 그가 민속악에도 관심을 기울여 영향을 주고 받았던 사실이다. 특히 1940년 조선음악무용연구소를 운영하던 시대의 명인 한성준에게 승무를 전수받은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승무는 누가 보전할거나, 여자들만 했고 여자들은 집으로 들어가면 그만이니까. 한성준 선생 돌아가시면 그만인데 남자가 없었어요. 난 참 깊은 뜻을 가지고 한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⁵⁾라며 승무에 대한

3) 최종민(2003). 『방일영국악상 10년』(방일영 문화재단), p. 119.

4) 이애주(2000). 심소 김천홍 대담-원로 예술인에게 듣는다. 『문화예술』 5월호, p. 92.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때 배운 승무의 순서를 매일 아침 연습한 덕분에 지금까지도 그 순서를 잊지 않고 있으며, 1955년 무용연구소에서 가르치기도 하였고, 직접 무대 위에서 공연하여 선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1937년에는 신무용가인 최승희의 반주음악의 녹음도 참여하였다. 최승희의 유럽 순회공연 때 사용될 작품인 「무당춤」, 「부채춤」, 「장고춤」, 「낙랑의 벽화」 등의 곡을 녹음하기도 하는 등 궁중정악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 걸쳐 교류를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이 1929년 아악수보로 재직하여 1940년 아악부를 사직하기까지를 청년기로 분류하였다. 청년기 시절 김천홍은 아악부 활동을 성실히 하면서 민속악과 신무용에도 관련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이화여자전문학교에 국악 강사로 위촉되어 당시 미비했던 국악교육을 위해 온 정성을 쏟아낸 시기였다.

제 3기는 1940년 아악부 사직 후, 고난을 겪었던 중년기이다. 그의 중년기는 일제 해방 후의 격동기를 거쳐 6.25동란과 부산 피난시절 등 그의 생애 중 가장 힘겨운 시기라고 사료된다.

이십여 년을 몸담아온 아악부를 사직하고 나서 김천홍은 국악의 길을 그만두고 함경도의 큰 형을 따라 생계를 책임지고자 떠나려 했다. 그러나 그의 딱한 사정을 알게된 김계선과 하규일의 권유로 조선권변 기생양성소 사무장으로 임명되어 궁중악 이외에 다양한 민속악에 눈을 뜨게 된다. 권변에서 행해지는 여러 춤들을 접하면서 민속무용에 대한 애착과 민속무용과 탈춤 등의 연희자에 대한 연민이 쌓여가던 시기였다. 최종민은 그의 저서에서 이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때부터 그는 여러 가지 음악체험을 해야 하는 파란만장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조선권변의 사무원 생활, 무악계의 악사 생활, 조선음악협회 시절, 광복 후의 대한국악원 시절 등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려운 생활을 오히려 새로운 경험의 기회로 생각하고 다양한 예술 체험을 했고, 결국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음악이나 무용에 대한 안목도 높아졌다. 이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이왕직아악부 출신들과 구별되는 오늘날의 김천홍이 되었고, 그런 경험들이 밑거름이 되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고 본다.⁵⁾

위 기록에 의하면 김천홍이 아악부를 사직하고 난 이후, 실로 다양한 인생 경험과 음악적 체험을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권변 사무장 생활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김천홍의 민속무용 발자취를 남기게 해준 기회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권변 사무장 생활도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조선의 권변들이 모두 폐쇄되고 김천홍은 다시 무직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큰 어려움에 봉착한 그는 동료들과 함께 당시 광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공연을 하던 산업전사위문단에 소속되어 전국각지를 돌며 공연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산업전사위문단 생활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굶판의 해금잡이로 생계를 이어가기도 하였다.

김천홍의 중년기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그의 전공이었던 궁중악과 정재보다는 민속악에 두드러지는 활동을 보이는 시기라 하겠다. 1943년에는 조선음악가협회 조선악부회원 무용담당으로 활동하면서 민속무용계의 생리를 익히게 되었으며, 그 후에는 가설극장의 흥행주로도 잠시 활동하기도 하였다. 광복 후, 1951년 국립국악원이 다시 창설되면서 예술사와 연주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민속악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발족한 대한국악원의 무

5) 문애령(2001). 『한국현대무용사의 인물들』(눈빛출판사), p. 135.

6) 최종민(2003). p. 124.

용부장으로 임명되어 다양한 무용 활동을 펼쳐보였다. 이 시기를 즈음하여 6.25동란이 발발하여 국립국악원 또한 부산 피난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김천홍은 무용 강습회의 강사로 대단한 인기를 모으게 된다. 국악원 주최 뿐 아니라 부산의 여러 단체에서 김천홍을 초빙하여 무용 강습회를 열었고, 그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바쁘게 활동하였다.

이처럼 김천홍이 본격적으로 무용 강습과 발표회를 하며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피난지 부산에서였는데, 특히 1951년 국악원이 주최한 무용 강습회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다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그는 국립국악원에서 하는 시조, 무용, 민요 강습에서 무용을 맡아 지도했고 대한국악원에도 자주 드나들었다.⁷⁾

그는 강습회를 통해서 무용지도의 경험을 살려 1954년에는 춤 지도를 위한 ‘한국무용기본도보(韓國舞踊基本圖步)’를 작성하게 되는데, 검인문제로 유보되다가 결국, 1969년 문화재관리국의 배려로 출판하게 된다. 이 사실은 김천홍이 국악가, 무용가로서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그 열정을 확인하는 일이라 하겠다. ‘1940년대 초 이화여전에서의 국악교육을 필두로 대한 국악원 국악사양성소, 무용인 협회, 한국가면극, 대한민속예술원, 정농악회 등 국악과 관련된 수많은 단체를 만드는데 앞장서 왔으나 그는 이를 굳이 ‘창단’, ‘결성’으로 강조하기보다 단순히 ‘참여’한 것 외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⁸⁾고 했던 것처럼 김천홍의 겸손하고도 겸허한 인간성과 함께 국악과 무용교육에의 열정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그의 중년기는 광복과 부산 피난시절의 어려움을 이기고 국악과 무용의 외길만을 고집한 김천홍의 고단한 삶을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는 시기라 하겠다.

제 4기는 부산 피난기가 끝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 1950년 중반부터 1970년 중반까지로 김천홍 인생의 장년기라 할 수 있다. 장년기의 활동으로는 크게 김천홍 고전무용연구소 개설을 시작으로 무용 후학 양성과 다양한 창작공연 활동, 탈춤의 발굴 및 계승을 위한 노력,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지정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시기는 그가 본격적으로 무용 창작활동을 시작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 발표된 주요 작품 「처용랑」과 「만파식적」에 관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1955년 서울로 돌아온 김천홍은 피난시절 무용강습회의 경험을 살려 종로구 낙원동에 김천홍 고전무용연구소를 개설하였다. 연구소는 이후 1978년까지 23여 년간 운영하면서 십여 차례 이사를 하는 고난 속에서도 후학 양성과 창작 작업의 발판이 되는 원천이 되었다.

학원운영과 동시에 이화여대에도 출강하여 궁중정재로는 「춘앵전」, 「검무」, 「무고」 등을 가르쳤으며, 민속무용으로는 「살풀이춤」, 「승무」, 「농악」, 「탈춤」 등을 강의하여 수많은 후학들을 양성하였다.

학원 개설 이후, 학원생들의 발전을 위해 그는 1956년 7월 시립극장에서 제 1회 김천홍 한국무용 발표회를 공연하였고, 선보인 작품으로는 1부 9작품, 2부 11작품 총 20작품이었다. 대표적으로 「승무」, 「농악무」, 「즉흥무」등과 궁중정재(宮中呈才)를 재해석하여 창작한 「채구회」, 「검무」등의 작품이 선보여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59년 제 2회 발표회에서는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처용랑」(處容郎)을 안무 발표하게 된다. 「처용랑」은 그가 직접 처용설화를 소재로 3막 5장으로 대본을 쓰고, 김기수에게 작곡을 의뢰해 30인조 국악관현악단인 해경악회(海警樂會)가 음악반주를 한 우리나라 최초의 대본과 작곡이 있는 무용극이다. 이 작품으로 김천홍은 1960년 서울시문화상을 수상하는 등, 당시 공연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1969년에는 회갑기념으로 제 4회 김천홍 고전무용 발표회를 가지게 된다. 국립극장

7) 최종민(2003). p. 131.

8) 이세기(2002). p. 118.

에서 선보인 이 공연에서는 김기수 작곡, 국립국악원 반주의 「만파식적(萬波息笛)」을 안무하였고, 이로 인해 다음해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수상하게 된다. 이 시기 그는 4회의 개인작품 발표와 더불어 아동무용발표회도 3차례 기획하게 되는데, 어린이 정서에 맞는 「춘향전」(春香傳), 「콩쥐팥쥐」 등의 아동무용극에도 안무적 역량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그의 장년기는 무용연구소 개설을 시작으로, 여러 무용극과 소품을 무대에 선보였으며, 아동무용극과 탈춤 등 민속무용 발전에도 영향을 끼친 아주 중요한 시기라 사료된다. 작품 활동 이외에도 장년기의 김천홍은 196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1호 「종묘제례악」 기능보유자 지정과 1971년 제 39호 「처용무」 기능보유자로 지정되는 등 큰 변화를 맞게 된다.

김천홍의 무용인생에 있어 궁중정재는 가장 큰 줄기라 할 수 있다. 종묘제례악과 처용무 기능보유자 뿐 아니라, 이 시대 마지막 무동으로 정재를 전수받았고, 후학들을 위해 여러 정재들을 발굴 재현한 작품들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이번 논문을 준비하면서 분석한 결과 정재 뿐 아니라, 한성준의 승무와 살풀이춤을 전수받는 등의 민속무용가로서의 김천홍, 또 여러 작품을 안무 발표하여 호평을 받은 안무가로서의 김천홍을 알 수 있었다.

1974년에는 대한무용학회 초대 회장직을 맡으면서 ‘논문집 발간, 그동안 내버려져 있던 석사학위논문을 책으로 엮어내고 학회지 발간을 서둘러 풀어낸 무용인구를 모으는 것이 급선무’⁹⁾라며 학회활동에도 앞장을 섰다. 그리고 1958년 한국가면극보존회를 발족시키며 우리 탈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탈춤발전에 공헌한 김천홍의 업적 또한 살펴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장년기는 김천홍의 작품안무 활동의 최절정기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궁중정재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제 5기는 노년기로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를 이른다. 이 시기에 그는 궁중정재 복원과 후학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온 힘을 쏟고 있다.

1978년에 20여 년 동안 운영하던 무용연구소를 정리하고, 국립국악원에만 출근해 국악원 일에 전념하였다.¹⁰⁾ 그는 국립국악원 예술사, 연구원, 자문위원을 거쳐 현재는 원로사범으로 재직 중이다. 문화재 지정 이후, 사라져가는 궁중정재의 맥을 잇기 위한 노력으로 그는 1977년대부터 궁중정재 복원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국립국악원의 궁중정재 발표회를 통해서 「오양선(五羊仙)」, 「몽금척(夢金尺)」, 「하성명(賀聖明)」, 「향발무(響鉢舞)」 등의 작품을 옛 문헌의 기록을 토대로 재현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는 자서전에서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전해져오는 정재홀기의 무용들을 하나씩 기록을 풀이해 무용으로 재연해 보려는 작업을 시도했었다. 물론 77년 이후 몇 가지 춤을 재연해 무대에 올리기도 했었으나 이것은 한갓 시도에 불과한 것으로 『고려사 악지』(高麗史樂志), 『악학궤범』(樂學軌範), 『정재홀기』(呈才笏記) 등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40여종이나 있었다. 나는 마음먹고 있었던 일이라 물신회기로 이 춤들의 재연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¹¹⁾ 라고 회고하였다.

김천홍의 노년기는 ‘궁중정재 재현의 대명사’란 칭호가 무색하지 않을 만큼 정재 복원에 심혈을 기울인 시기이다. 70년대 말부터 『고려사 권70 악지』, 『악학궤범』, 『정재홀기』 등에 수록되어 있는 궁중정재를 재현하기 시작하여 1981년에는 더욱 박차를 가해 봄, 가을, 겨울 3회에 걸쳐

9) 서울신문. 1974년 7월 9일자 기사

10) 김천홍(1995). 『심소 김천홍 무악집십년』(민속원), p. 445.

11) 앞의 글(1995). p. 445.

공연을 했다. 5월에는 이틀 동안 공연을 마련해 첫날은 「가인전목단」(佳人剪牧丹), 「하황은」(荷皇恩), 「제수창」(帝壽昌), 「무애무」(無碍舞), 「사선무」(四仙舞)등을 했고, 둘째 날에는 첫날 공연했던 「춘앵전」(春鶯傳), 「하성명」(賀聖明), 「오양선」(五羊仙), 「처용무」(處容舞), 「사선무」를 공연했다. 10월에는 「박접무」(撲蝶舞), 「성택」(聖澤), 「최화무」(催花舞), 「헌선도」(獻仙桃), 「수보록」(受寶籙), 「문덕곡」(文德曲), 「육화대」(六花臺) 등을 무대에 올렸다. 11월에는 「박접무」, 「봉래의」(鳳來儀), 「고구려무」(高句麗舞), 「보상무」, 「첩승무」(疊勝舞), 「연화대무」(蓮花臺舞), 「무산향」(舞山香), 「만수무」(萬壽舞), 「수연장」(壽延長), 「경풍도」(慶豐圖)등을 발표했다.¹²⁾

이렇듯 김천홍이 복원, 재현한 작품이 31종목이고, 이왕직아악부 시절 직접 스승들에게 전수받은 12종목을 모으면 총 43종목이 된다. 이 43가지의 정재가 현재 행해지고 있는 궁중정재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가 우리 궁중정재 역사상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룩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확고한 답을 해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정재 재현작업 도중 1981년 제자들과 더불어 김천홍 무악생활 60주년 기념공연을 하게 된다. 이 공연에서 발표한 작품으로는 「봉래의」, 「보상무」, 「연화대무」, 「무산향」, 「수연장」, 「만수무」 등 정재홀기에 의해 김천홍이 재현한 작품과 아악부 시절 전수받은 작품 위주로 편성되었다.

김천홍의 노년기 특히 80년대는 대내외적으로 대학 강의와 강습으로 바쁜 일정이었으며 대악회, 정농악회,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등 여러 공연으로 분주했던 시기이다. 1983년 한국국악대상을 수상하고, 이 해부터 8여 년간 무형문화재 예술단에 선정되어 무형문화재 발굴 및 보존에 대한 노력으로 문화계에 지대한 연구를 남기기도 하였다. 그리고 1993년에는 김천홍 무악 70주년 기념공연을 기획하여 무용 뿐 아니라 음악공연도 함께 넣어 해금과 양금에 직접 출연하기도 하였다. 1997년 국립국악원을 퇴직한 이후로도 원로사범으로 정재 연구와 국악계의 큰 스승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는 정재 발굴 등과 같은 공연활동 뿐 아니라 학술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여 2002년에는 『정재무도홀기창사사보』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창사 45종이 정간보와 오선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후학들에게 정재를 연구하는데 있어 귀한 자료가 되고 있다.

김천홍의 생애를 살펴보면 알면 알수록 그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더욱 연구해야 할 문제들이 도출되는 것 같다. 노년기로 갈수록 김천홍의 활동은 공연활동 이외에도 무도홀기에 입각한 정재 재현과 국악활동 등 다방면으로 그 영역을 넓혀나가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노년기에 있어 또 중요한 사실은 후학들을 위한 장학사업이다. 1997년 국립국악원 퇴직시 받은 퇴직금과 같은 해 방일영 국악상에서 받은 상금, 그리고 사재를 보태어 서울대 국악과와 이화여대 무용과에 거액의 장학금을 기탁, 후학들을 위한 장학사업에도 큰 성의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한국춤의 역사’ 김천홍의 일생을 시대별 다섯 기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업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김천홍은 국악계 뿐 아니라 무용계의 지난 한 세기 동안 선구자의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라 하겠다. 아악부생으로 입소하여 순종황제 앞에서 어린 무동으로 선발되어 춤을 추던 초년기 시절부터, 긴 세월동안 민속무용과 정재를 위해 평생을 바친 김천홍의 일생은 한국무용계의 역사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Ⅲ. 주요작품

12) 최종민(2003). p. 142.

김천홍의 주요작품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른 시각도 있겠지만, 본 연구자는 김천홍의 주요작품을 첫째, 이왕직아악부 시절 전수받은 궁중무용, 둘째, 1970년대 말부터 정재무도홀기를 통해 재현한 궁중무용, 셋째, 한성준으로부터 전수받은 민속무용, 넷째, 1960년대를 전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창작작품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분류함에 있어 가장 의미 깊은 부분은 궁중무용이라 사료된다. 그의 자서전에서 회고한 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70년 말 궁중무용의 재연을 시작한 것이 82년까지 3년 동안 31종의 무용을 재연해 무대에 올려놓았다. 그래서 83년대에는 재연된 무용 31종과 내가 아악부 시절에 배운 무용 12종을 합해 궁중무용의 수효가 크게 늘어 43종이나 되었다. 이렇게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전해지고 재연된 무용은 그 후 국악원에서 개최하는 전통무용발표회는 물론 국악원, 국내외 공연에 출연하며 지금까지 10여년을 활동해서 이제는 전통무용으로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¹³⁾

위와 같이 김천홍 본인 스스로도 궁중무용의 전수와 복원을 중요한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역사 속으로 퇴화될 뻔한 중중무용을 이 시대에 접할 수 있게 한 매개체로서 김천홍의 역할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김천홍의 주요작품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악부 시절 전수받은 궁중무용

인터뷰 자료와 다른 문헌들을 참고하여 아악부 시절 스승 이수경으로부터 전수받은 궁중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922년 아악부 2기생으로 입소하여 다음해 순종 오순기념 진연 때 추어진「춘앵전」, 「포구락」, 「무고」, 「보상무」, 「가인전목단」, 「장생보연지무」, 「수연장」, 「연백복지무」, 그리고 1920년대 말에 전수받은 「처용무」, 「봉래의」, 「만수무」, 「향령무」 이상 12작품과 중요무형문화재 제 1호로 지정된 「종묘제례악」이다.

이러한 여러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춘앵전」, 「처용무」 그리고 「종묘제례악」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춘앵전」은 궁중정재 중 가장 많이 추어지는 독무로서, 노란색 앙삼에 부용관을 쓰고 여섯자 화문석위에서 추는 아름다운 춤이다. 이 춤을 가르켜 사람들은 전아(典雅)함과 기품이 넘치는 춤이라 평가하고 있다. 김천홍은 1922년 아악부생으로 입소하여 스승으로부터 이 춤을 배운 이후 일생동안 추었고, 1969년 회갑기념무대와 1972년 무악생활 50주년 기념공연, 명인명무전 등 주요 공연에서 선보였다.

구히서는 그의 저서에서 김천홍의 「춘앵전」을 보며 「춘앵전」은 지극히 화사하면서도 절제된 움직임으로 곱게 받들어 아끼며 내놓는 구슬 같은 춤이고, 그의 춤의 일생을 어떤 춤보다 여실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춤이다....조선왕조 아악부원으로 궁중에서 추던 춤을 고이 간직해서 오늘에 숨쉬게 하는 그의 춤은 옛 향기를 그대로 전하면서 시들지 않는다.¹⁴⁾며 그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13) 김천홍(1995). p. 446.

14) 구히서(1985).『한국의 명무』(한국일보사 출판부). p. 402.

김천홍이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춤 중,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또 다른 작품은 「처용무」이다. 이 춤은 신라 헌강왕때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남성적이며 활발한 춤사위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허리에 두 손을 놓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걸음걸이가 웅장하고 소매를 들어 안으로 끼는 도둑춤이나 한삼을 어깨에 메었다가 뿌리는 낙화유수가 모두 특이한 크기가 있다. 음악은 두 번의 창사(唱詞)가 있고 수제천(壽齊天) 악장의 장단이다.¹⁵⁾ 「처용무」는 흑포사모(黑布絲帽)를 입고 추는 독무로 시작하여, 쌍처용(雙處容)으로 두 명이 추기도 하였다가, 조선조 중기 이후에 오방 처용무로 확립되었다. 또한 『악학궤범』에는 「학연화대처용무합설」로 보다 장대하고 호화롭게 연희되기도 하는데, 현재 많이 추어지고 있는 「처용무」는 다섯 방위를 상징하는 청백홍흑황(淸白紅黑黃)의 오방처용무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춤은 특히 ‘한국무용의 기교를 전통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처용무」는 씩씩하고 장엄한 남무의 풍도와 낙화유수의 가녀린 애조가 두드러져 우리의 고대무용을 보다 본격적으로 형성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¹⁶⁾는 이세기의 평처럼 역사학적 가치는 뛰어나다고 하겠다. 또한 구히서는 ‘궁중 무동으로 시작해서 오늘날 한국무용의 수호자로 건재하는 「처용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조선왕궁의 마지막 표정이다. 처용무가 있고 그 춤을 전해 오늘의 무대에 보여줄 수 있는 그가 있어서 한국궁중무의 멋과 그 다양성이 웅변적인 증거를 갖게 된 것이다. 격식이 고아하고 춤사위가 장중해서 궁중무용의 왕좌(王座)를 차지하고 있는 처용무와 김천홍, 곧 궁중무용의 대가라는 이미지는 이 한판 멋진 춤에서 더욱 빛이 난다.’¹⁷⁾라며 김천홍의 춤을 극찬하고 있다.

「처용무」는 197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39호로 지정되어 더욱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기능보유자인 김천홍을 중심으로 국립국악원단원들에 의해 공연되고 있으며, 정재 종목 중, 가장 대중적이고 재미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9년도에는 김천홍에 의해 여성들도 「처용무」 이수를 받게 되어 현재 공연활동과 활발한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종묘제례악」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1호로 지정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무형 유산 중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종묘제례악 일무의 춤은 열을 맞추어 추는 의식무로서, 그 구성형식에서 나오는 장대함과 힘을 느낄 수 있는 춤이다. 제사의식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장중함과 엄숙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이 춤은 직선적인 움직임과 아주 느린 동작들은 끊어질 듯 이어지는 정중동의 묘미를 경험하게 된다.

김천홍은 ‘1924년경부터 우리들이 학생의 신분으로 제례에 참석해 홍주의를 입고 복두를 쓰고 남사대에 목화를 신은 악사의 모습으로 연주를 했다..... 그리고 그 후 90년대 초까지 70여 년 동안을 종묘제사와 문묘제에 참석해 연주를 했었다.’¹⁸⁾ 라고 종묘제례악과 일무에 관한 역사적 소명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그의 자서전에서는 1926년 아악수보로 임명되어 아악부에 출근하면서 배우게 된 과목 중 주목해야 할 것은 종묘일무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는 일무를 배우기 이전부터 종묘제사에서 추어진 일무를 보아왔다고 전하고 있는데, 당시의 일무는 연희자의 부족으로 ‘고립아악수’라 하여 임시로 춤 출 사람들을 초빙하여 앞줄과 좌우에는 종묘악을 아는 아악수들이 서고 그 뒤에 고립아악수들을 배치시켜 간단한 동작들을 따라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파행적으로 행해오던 종묘일무를 1926년경

15) 구히서(1985). p. 398.

16) 이세기(2002). p. 117.

17) 구히서(1985). p. 398.

18) 김천홍(2001). 이야기가 있는 방. 『문화예술』 8월호, p. 65.

김영제가 시용무보의 원형을 그대로 재현하여 김천홍 등 아악수들에게 전수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을 기억하며 그는 “이렇게 한동안 변형되어 추어오던 종묘일무를 김영제 선생께서 시용무보에 적힌 대로 원형을 재현하여 지도해 주셨다. 일무의 원형이 재현되어 오늘날의 종묘제례 일무가 존재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1964년 종묘제례악과 함께 중요무형문화재 제 1호로 지정되어 전승 보존케 된 기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현재 본인이 그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어 전수와 보존에의 큰 임무를 짊어지고 있다. 내게는 일평생에 다시없는 영광이며 민족적인 대업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항상 소홀함이 없도록 주소(晝宵)로 돌아보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¹⁹⁾며 감회를 회고하고 있다. 이러한 「종묘제례악」의 소중한 가치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아 2001년 종묘제례와 일무가 프랑스 유네스코회의에서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결작’으로 선정되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2. 1970년대 말부터 정재흥기를 통해 재현한 궁중무용

1970년대 후반부터는 김천홍의 무용인생 중 가장 높은 업적으로 평가되는 궁중정재 재현 작업을 하게 된다. 이 정재 재현작업은 여러 일간지에 집중보도 되는데, 문화계뿐만 아니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큰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선일보는 1980년 국립국악원 정재 재현공연을 다루면서 그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뒤에 한국무용을 공부할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물려줄 자료를 남겨주기 위해 우리의 옛 무용을 재현하는 일에 손을 대었습니다. 또 궁중무용을 바로 배운 사람은 몇 사람 안되고 모두 나이가 들었으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해 놓으면 무대조건과 현대감각에 맞추느라 자꾸 변질될 것 같아 궁중무용 재현작업을 시작했어요. 시작하고 나니 왜 어릴 때 그리고 젊어서 기록에만 남아있던 궁중무용을 다 배워놓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크게 듭니다.²⁰⁾

위는 김천홍이 궁중정재 재현작업을 어떠한 사명으로 시작하였는가에 대한 중요한 답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984년 경향신문에서는 궁중정재의 재현 과정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국립국악원이 제자리를 잡아가자 1980년대부터 봄, 가을에 전통무용발표회를 열어 문헌에만 나와 있는 궁중정재를 재현하기 시작, 44가지가 발표 되었다. ‘지금 사람이 좋아하나, 싫어하나를 떠나서 우리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후학들에게 참고가 될 것 아니겠어요. 내가 배웠던 10여 가지 무용에 나타나는 몸의 역양에 준해서 나머지 글자로만 있던 것을 춤으로 풀었지요.’²¹⁾

이처럼 1970년대 후반부터는 김천홍을 중심으로 국립국악원에서 정재무도흥기에 전해져 내려오던 여러 종목들의 정재를 재현해나가는 사업을 하기 시작한다. 흥기에는 동작의 명칭과 의식, 의물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한 무작과정과 무용수들의 동선이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정재의 재현작업은 『악학궤범』, 『정재무도흥기』, 『고려사 권 70 악지(樂志)』등 문헌과 조선의 마지막 무동으로 직접 전수받았던 정재의 춤사위들을 토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의 자서전에 의하면 이 시기에 재현된 정재의 수는 총 31종에 이른다.

19) 김천홍(1995). p. 70.

20) 조선일보. 1980년 7월 2일자 기사.

21) 경향신문. 1984년 10월 25일자 기사.

근천정(觀天庭), 침수무(尖袖舞), 오양선(五羊仙), 몽금척(夢金尺), 향발무(響鉢舞), 하성명(賀聖明), 하황은(荷皇恩), 제수창(帝壽昌), 무애무(無碍舞), 사선무(四仙舞), 성택(聖澤), 최화무(催花舞), 헌선도(獻仙桃), 수보록(受寶籙), 문덕곡(文德曲), 육화대(六花臺), 침승무(疊勝舞), 박접무(撲蝶舞), 초무(初舞), 고구려무(高句麗舞), 연화대무(蓮花臺舞), 학무(鶴舞), 무산향(舞山香), 경풍도(慶豐圖), 아박무(牙拍舞), 수명명(受明命), 곡파(曲破), 헌천화(獻天花), 선유락(船遊樂), 심향춘(沈香春), 학연화대처용무합설(鶴蓮花臺處容舞合設)²²⁾

위와 같이 김천홍은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무려 31종목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정재를 재현하였던 것이다.

정리하여 살펴보면 김천홍은 무보가 남아있는 춤을 문헌을 바탕으로 재현해서 국립국악원 정기공연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무대에서 발표하는 큰 공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자와 그림, 도면에 의해 재현이 가능한 춤을 차례로 살아있는 춤으로 살려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김천홍의 궁중정재 재현작업은 근세 한국무용역사상 가장 의미 깊은 일이라 사료된다.

3. 한성준에게 전수받은 민속무용

‘궁중무용의 대명사’, ‘조선왕조의 마지막 무동’ 등 궁중무용으로 널리 알려진 김천홍의 무용인생에 있어 민속무용이라는 분야는 분명 낯설 것이다. 그러나 김천홍은 아악부 재직 시절 당대의 명인 한성준의 문하에서 「승무」와 「살풀이춤」 등을 전수받은 바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성준에게 사사받은 일화는 당시 궁중악을 전공하던 김천홍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과 민속무용에 대한 애착을 키우게 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한성준의 춤들이 권변을 통해 기생들에게만 전수되던 사실을 안타까워 한 그는 그 춤맥이 끊어질까 걱정하여, 아악부 시절 몰래 한성준 문하에 들어가 그의 춤을 전수받았던 것이다. 또한 궁중악을 담당하던 그가 한성준의 「승무」를 지금까지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조기운동 삼아 매일 아침 연습한 덕분이라며, 그 일화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후 1955년 무용연구소에서 「승무」를 꾸준히 가르쳤으며, 간간이 직접 무대에 선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김천홍의 민속무용에 대한 애착은 그의 무용발표회에서 여러 번 공연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춤을 보고 여러 평론가들은 단아하고 정통한 춤사위에 대하여 여러 평을 남기기도 하였다.

성경린은 1972년 김천홍의 무악생활 50주년을 기념하는 무용발표회의 기사를 통해서 그의 살풀이춤을 보고 명인의 무대다운 관록을 유감없이 보인 가작이라고 평하였으며, 「승무」를 ‘오랜 기억을 더듬어 고풍(古形)에 충실한 느낌이었는데, 범고를 생략한 것이 티가 아닐까’²³⁾라고 평하고 있다.

또한 이세기는 그의 저서에서 ‘그의 「살풀이춤」은 멈출 듯 움직이는 여백의 미가 일품이다. 명주수건을 던졌다가 다가서고 다가섰다 물러서는 흐르는 춤태는 무르익은 예술의 연륜이 묻어나 이를 보고 “속으로 흐느끼지 않은 이가 없다”는 찬사가 이어진다. 이 춤은 1996년 초 하와이대 객원 교수로 갔다가 배한라 여사의 1주기를 맞는 추모무대에서 춘 것이 “그곳의 객

22) 김천홍(1995). p. 446.

23) 서울신문. 1972년 6월 27일자 기사.

석을 흐느끼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²⁴⁾고 극찬하였다.

이렇듯 한성준류 민속춤을 전수받은 그대로 정통으로 선보이고 있는 김천홍은 수많은 해외공연에서도 살풀이춤을 선보였다. 케네디 센터의 공연과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 공연 등에서 ‘사그러질 듯 끊어질 듯 되살아 생동하는 살풀이춤’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김천홍의 민속무용 활동 중,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은 탈춤의 전수 및 공연 활동이다. 그의 자서전에서는 탈춤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다.

가면극보존회의 노력으로 하회탈, 양주탈, 북청사자탈들의 원본이 제작되었고, 이때까지 아주 미미했던 가면극에 대한 연구도 58년을 기점으로 학자와 교수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가면극과 민속놀이에 대한 논문과 저서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 후 한국가면극보존회는 가면극연구회로 개칭하고 현재까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²⁵⁾

위와 같이 한성준류 민속무용뿐 아니라 탈춤의 전수에도 큰 공헌을 한 김천홍의 민속무용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려운 시절, 민속무용의 소중함을 깨닫고 스스로 민속무용계에 뛰어들어 전승과 보급에 앞장서며, 한편으로 학술적인 연구에도 매진함으로써 민속무용의 발전에 큰 버팀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창작작품

김천홍은 “무용은 단순한 기술에서 그치는 놀이가 아니라 창작혼에 의해 생성되는 독립예술”이라고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 이처럼 김천홍은 정제와 민속무용을 섭렵하고 무용극 형태의 창작작품 활동에도 그 영역을 넓히기 시작한다. 그는 1959년 「처용랑」과 1969년 「만파식적」을 필두로 여러 편의 창작작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창작작업은 김천홍 고전무용연구소의 학생들과 여러 제자들과 함께 진행되었는데, 특이할 사항은 어린 학생들을 위한 작품, 「춘향전」, 「콩쥐팍쥐」, 「꼭두각시」등을 안무하여 아동극분야에도 그 역량을 발휘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처용랑」과 「만파식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처용랑」은 김천홍의 두 번째 개인발표회에 선보인 무용극으로, 당시 보기 드문 작품으로 큰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가 직접 처용설화를 소재로 3막 5장으로 대본을 쓰고, 김기수에게 작곡을 의뢰해 30인조 국악관현악단인 해경악회가 음악반주를 한 우리나라 최초의 대본과 작곡이 있는 무용극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으로 김천홍은 1960년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하는 등, 당시 공연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자서전에 의하면 「처용랑」을 보고 무용평론가 조동화는 동아일보에 공연평을 다음과 같이 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완숙된 멧과 흥」

문헌적인 깊이에서 새로움을 찾아내려고 든 김천홍씨의 무극 「처용랑」(3막5장)은 이 해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손색이 없는 무용공연이었다. 이것은 마치 하늘높이 비상하기 위하여 몸을 낮추어 그 반동을 이용하려고 든 <푸레바라송>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새삼 그의 우리 춤의 척도적인 위치에 있어준 귀

24) 이세기(2002). p. 117.

25) 김천홍(1995). p. 249.

중함을 다시 확인케 하였다... 그의 완숙한 춤이 우리 춤의 본질적인 흥과 멋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어서 일 것이다.²⁶⁾

이처럼 「처용랑」은 당시 전곡을 작곡하여 실황음악으로 사용한 점과, 극과 막 사이의 끊김 없는 연결 등으로 공연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작품에 사용된 춤사위들은 궁중정재와 탈춤, 민속무용적인 요소들을 적절히 가미하여 새로운 방향의 무용극을 선보임으로써 큰 호응을 받았던 작품이다.

「만파식적」은 1969년 국립극장에서 회갑기념공연으로 발표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문공부 창작지원 작품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작품으로 다음해인 1970년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된다. 당시 문화공보부의 창작공연 지원금은 공연경비 문제로 고민하던 김천홍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작품의 제작과정은 일년 전부터 착안해 대본작성, 레파토리 선정, 안무구성, 무대장치 등 작품에 소요되는 모든 것을 미리 선정하는 등 1968년 초부터 안무에 들어가는 치밀함을 엿볼 수 있다. 이 작품도 안무가 마무리 된 상태에서 작곡자에게 음악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작업하였는데, 장단의수와 대북, 속도 및 작품 내용들을 상세하게 의논하는 등, 그의 해박한 음악적 깊이를 알 수 있었다.

이 작품은 5막 21장의 무용극으로 출연인원이 40명에 이르는 대작으로『삼국유사』에 나오는 신라 신문왕대의 설화를 배경으로 궁중정재와 민속무용의 다양한 춤사위와 형태를 바탕으로 창작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김천홍의 주요작품을 네 가지 -전수반은 궁중무용, 재현한 궁중무용, 민속무용, 창작무용-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궁중무용 뿐 아니라 여러 창작작품과 민속무용의 공연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특이할 만한 사실이라 하겠다.

IV. 김천홍의 예술세계

지금까지 김천홍의 시대별 활동과 업적, 그리고 주요작품을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한 세기를 오로지 한국 전통춤에만 매진한 그의 삶에서 우리는 그의 인품과 덕망, 그리고 전통무용에의 열정을 읽어낼 수 있었다. 특히 어려운 시절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유지도 어려웠던 그 시기에 궁중무용 뿐 아니라, 민속무용에도 관심을 기울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한 것은 그의 철저한 전통무용에의 예술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또한 후학을 양성하고, 장학사업에도 힘을 쏟는 등, 평생 청렴하게 살아오면서도 전통무용을 지켜내는데 있어 항상 앞장서온 한국 무용계의 큰 어른이자 선구자라고 평할 수 있다.

이러한 김천홍의 춤인생과 업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예술세계를 유추할 수 있다.

첫째, 홀기로만 전해 내려오던 궁중정재 복원을 통해서 그가 추구하고자했던 ‘궁중정재의 재현’이다. 1970년대 말부터 시작한 재현작업은 문헌에만 전해 내려오던 31작품을 문헌기록을 고증하여 고스란히 재현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1926년 아악부원으로 입소하여 당대의 명인, 함화진, 이수경, 김영제, 하규일 등으로부터 궁중무악을 두루 전수받고, 구십 평생 지금까지 궁중무용의 전수와 발전에 힘을 기울이는 그의 삶에서 ‘궁중정재 재현의 대명사’란 칭호가 무색하지 않을 그의 예술세계를 유추할 수 있다.

26) 김천홍(1995). p. 318.

둘째, 창작작업에도 힘을 쏟아 여러 편의 소품과 아동극을 안무하였고, 특히 무용극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지평을 열었다. 특히 무용극 중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처용랑」과 「만파식적」은 최초로 무용극을 위한 작곡과 실황연주를 기획한 것으로 한국 창작무용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전환을 보여준다. 안무가 음악에 따라가던 수동적 작업방식에서 탈피하여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여 안무에 맞춰진 음악을 작곡함으로써, 안무자가 의도한 그대로의 음악을 선택하고 사용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렇듯 그의 주요작품 「처용랑」과 「만파식적」 등의 작품제작과정에서 김기수에 의해 작곡된 음악과 극적 장치들은 그 당시 한국창작춤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셋째, 일제치하와 전쟁이 발발했던 어려운 시절, 사라져 가는 우리 민속무용의 가치를 알고 그 보존과 보급을 위해 노력한 점을 들 수 있다. 아악부 시절 궁중악이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민속무용의 전승자의 부재를 걱정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전수받아 후대에 계승하고자 노력한 사실은 후학들로 하여금 귀감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김천홍은 한성준의 민속무용을 사사받고, 여러 탈춤 연희자들과 교류하여 한국가면극보존회를 창설하는 등, 민속무용의 발전과 전승에도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대한무용학회 초대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공연활동 뿐 아니라 무용의 체계적인 학술연구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연구 등을 주장하며, 한국무용계의 학술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점이다. 그의 저서로는 『한국무용기본무보(1969)』를 필두로 『정재무도홀기창사사보 I, II(2002, 2003)』, 『중요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1966)』를 통하여 종묘일무 외 14종목을 집필하였다. 또한, 『심소 김천홍 무악70년(1995)』과 올해 발간 예정인 『심소 김천홍의 우리춤 이야기(2004)』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정악 양금보(1982)』, 『정악 해금보(1988)』 등 다양한 정악악보와 정재 관련 자료를 집필하였다. 이렇듯 실기적 면모뿐 아니라, 학술자적인 면모를 알 수 있는데, 김천홍은 국악과 무용계의 학술적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선구자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김천홍은 평생 외길만을 고수하면서 청렴함을 잃지 않은 이 시대의 마지막 선비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춤은 올곧고, 따뜻한 인품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자기과시가 전혀 없는 담백한 춤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춤꾼으로서의 삶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장학사업이라 할 수 있다. 평생을 받쳐 무용계에 헌신한 그의 노년기에 모든 사재를 털어 장학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 그의 크나큰 업적이라 말할 수 있다. 평생 수십 번의 이사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청렴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과 상금 등을 털어 후학들에게 거액의 장학금을 쾌척한 사실은 무엇보다도 무용계의 의미 있는 업적이 아닌가 사료된다. 청렴함의 가치가 사라져 가는 오늘날, 김천홍의 이러한 행보는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그의 예술세계는 청렴하고 올곧은 성품과 덕망으로 이루어낸 이 시대의 진정한 예인이라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본 논문은 지난 한 세기를 통해서 한국무용의 살아있는 역사라 할 수 있는 김천홍의 시대별 활동과 업적, 주요작품들에 나타나는 그의 예술세계를 고찰한 논문이다.

“살아있는 춤의 역사”, “한국궁중무용의 정통 계승자”로 불리며 한평생 예인의 길을 살아온 김천홍은 가무악의 명인이자, 학자라 할 수 있다. 백세를 바라보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우리의 전통음악과 정재의 복원과 전승에 매진하여 무용, 국악계를 통틀어 가장 높은 스승이자 인품과 학식에 있어서도 따를 이가 없는 예인이라 말 할 수 있다.

김천홍의 삶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대별 활동은 다섯 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922년 이왕직 아악부 2기생 입소를 기점으로, 궁중무악 뿐 아니라, 여러 민속무용 보존과 발전에 한 평생 헌신적인 힘을 쏟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문화상(1960), 문화재보존공로상(1968), 대한민국 예술원상(1970), 국민훈장 모란장(1973), 한국국악대상(1983), KBS국악대상(1992), 방일영 국악상(1997), 국민훈장 금관문화훈장(2001) 등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김천홍의 삶과 업적에서 유추할 수 있는 예술세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궁중무용 재현의 대명사’란 칭호와 같이, 궁중정재의 재현과 전승에 평생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구십 육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평생 국립국악원 원로사범으로 근무하면서 후학들의 정재연구와 전승에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둘째, 창작작업에도 힘을 쏟아 여러 편의 소품과 무용극, 아동극을 안무하여 당시 한국 창작무용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점이다. 그는 평소에 젊은 후학들에게 새로운 실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셋째, 김천홍은 궁중정재 뿐 아니라 민속무용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 한성준의 민속무용과 탈춤 등을 직접 사사받아 사장될 위기에 처한 한국 민속무용의 발전에 버팀목이 된 점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공연활동 뿐 아니라 무용의 체계적인 학술 연구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연구 등을 주장하며, 한국무용계의 학술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한 점이다. 다양한 정악악보와 정재 관련 저서를 집필하여 국악과 무용계의 학술적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선구자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평소 청렴한 삶을 몸소 실천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일은 장학사업이라 할 수 있다. 평생 국록(國祿)으로 받은 퇴직금과 상금, 그리고 사재를 털어 국악과 무용을 전공하는 후학들에게 장학금을 마련하고, 그 자신은 남은 여생마저도 후학들의 공연과 학술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점이다.

본 연구자는 김천홍의 삶과 예술세계를 연구하면서 마치 깊고도 아득한 첩첩산중을 오르는 느낌이였다. 멀리 거대한 봉우리를 향해 한길로만 건다가 여러 골짜기와 언덕을 넘어 오르며 산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듯이, 김천홍의 춤인생은 방대하다고 하겠다. 계곡과 골짜기가 어울려 큰 산맥을 이루는 우리의 산천과 같이 김천홍의 삶과 예술세계는 전통무용의 거대한 산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심금을 울리는 연륜의 춤이라 대변되는 이 시대의 마지막 예인, 김천홍의 예술세계를 시대별 활동과 업적, 주요작품을 통해 연구한 논문이다.

본 논문은 일 세기의 방대한 역사적 사료와 그의 활동을 한 편의 논문으로 집약하여 다루는데 그 한계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궁중정재의 명장으로만 알려진 김천홍의 또 다른 활동과 면모를 연구하고, 청렴한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예술세계를 고찰하는데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천홍의 다양한 예술활동을 다른 관점으로 연구한 심도 깊은 논문이 나오기를 후학들에게 바라는 바이다.

주제어: 김천홍, 궁중무용, 전통춤, 춘앵전, 처용랑

■ 참고문헌

- 구히서(1985). 『한국의 명무』(서울:한국일보사 출판부)
- 김천홍(1995). 『심소 김천홍 무악칠십년』(서울:민속원)
- 김천홍(2001). 이야기가 있는 방. 『문화예술』 8월호.
- 문애령(2001). 『한국현대무용사의 인물들』(서울:눈빛출판사)
- 이세기(2002). 『빛을 가꾸는 에피큐리언』(서울:푸른 사상)
- 이애주(2000). 심소 김천홍 대담-원로 예술인에게 듣는다. 『문화예술』 5월호.
- 최종민(2003). 『방일영 국악상 10년』(서울:방일영문화재단)
- 2002년 9월 25일. 『심소 김천홍 선생 무악인생 80주년 기념공연』 팸플렛 자료.

K C I

Abstract

2. The Artistic World of Kim, Chunheung

가. Myungsook Kim
Professor of Dance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Kim Chunheung's activities and achievements and his art world represented in his works. We would call him a scholar and master of dance music who has lived as an artiste and has been called "a living history of dance" and "an orthodox successor of Korean court dance." Regardless of the age of almost one hundred years old, he has exerted himself to restore and bequeath *Jungjae*. He is the best artiste in personality and learning throughout the Korean music and dance circles. Kim Chunheung's art worl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he devoted his whole life to the restoration and succession of *Jungjae* in court and so he got his nickname "the pronoun of restoration of court dance" In spite of his old age(ninety-six), he has worked as a senior instructor in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nd has advised his juniors about the study of *Jungjae*.

Second, he choreographed several musical sketches and drama for children and presented new ways of Korean creative dance. He placed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new experiment and put his heart into creative works on the basis of tradition.

Third, he showed a keen interest in Korean folk dance in addition to *Jungjae* in court and apprenticed himself to Han Sungjoon and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folk dance.

Fourth, besides performances he laid stress on the systematic studies and curricula of Korean dance and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dance studies. He wrote various musical scores about *Jungjae* and became a pioneer of Korean music and dance.

Fifth, he managed a scholarship fund. He raised the fund by donating his retirement allowance and his prize money and his private assets. The fund will be of help for the students who study Korean music and dance.

Kim Chunheung's life and art world seems like a great mountain of Korean traditional dance. His dance touched people's heartstrings and he is the last artiste of the time.

Key Words: kim, Chunheung, Court dance, traditional dance, Chunaeng-jon, Cheoyong-rang

к с і